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광주지역 9→17곳 늘어

시의회, 확정안 의결... 2인 선거구 13곳 축소 소수당·여성·장애인 등 참여기회 확대될 듯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에 3~4인 선거구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다수당에 의한 의회독점주의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소수정당과 사회적 약자, 여성 등의 정치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9일 각 구별 의원간담회를 갖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광역단위 전체 기초의원 정수는 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시의회가 이를 변경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시의회는 각 구별 경계안에서만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 있을 뿐 구간경계를 넘어서는 정수조정은 안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쟁점은 크게 3~4가지로 ‘인구 50%+동수 50%’ 기준에 따라 동구 7석을 6석으로 줄이고 광산구는 14석을 15석으로 늘리고, 인구 8만명 수완동(광산 ‘마’ 선거구)을 따로 분리하되 의원정

수는 시 획정위 안인 3명 대신 2명으로 하되 1명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 2,000명에 육박하는 ‘다’ 선거구(하남·임곡·점단1·2, 비아)로 보내 ‘다’ 선거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다.

북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북구갑’ 8명, ‘북구을’ 10명이던 것을 구역정리를 통해 갑·을 모두 9명씩으로 조정할 가운데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곳에서의 반발이 컸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지난 13일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의견 조율에 실패했고, 지난 16일에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두 차례나 열고도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법정 의결시한을 이틀 앞둔 19일 다시 구별 의원간담회를 가졌고, 그 결과 동구와 북구는 시 획정위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광산구만 마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다선거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만 수정 안건으로 본

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이로써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명실상부 3~4인 선거구제로 재편되게 됐다. 단 한 곳도 없었던 4인 선거구는 2곳(광산가, 광산다)으로 늘었고, 3인 선거구는 기존 9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대신 2인 선거구는 16곳에서 3곳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인 선거구가 64%를 차지해 1·2당이 나눠먹던 방식이 개선돼 3~4인 선거구가 85%에 달하게 됐다. 전체 선거구 수도 25개에서 20개로 줄었다.

획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갈등의 요인이 없는 건 아니다.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조정된 광산 마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4만명에 달해 거대 선거구 논란이 일 수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 8개 동이 몰려 있는 광산 가선거구도 과다동수 논란이 일 수 있다. 여기에 독점주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1명씩의 후보를 내자는 소수 정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지, 사표를 줄이기 위해 득표수 대비 의석수를 배분하는 완전 비례대표제가 공론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조기철 기자



지방분권 개헌 이행하라 지방분권개헌 광주·전남·전북회의가 19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안 즉각 이행” 등을 촉구 하고있다. /김태우 기자

김영록, 민주 전남지사 경선 출마자격 논란

“지역위원장 사퇴시한 넘긴 것 당헌당규 위배”

6·13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출마할 예정인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아직 사퇴하지 않아 당내경선 출마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 전 장관이 아직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당헌당규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남도당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등은 선거 120일 전(2월13일)까

지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개호 위원장의 불출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안후보로 거론됐지만 뒤늦게 사퇴하면서 지역위원장 사퇴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장관을 전략공천하지 않는 한 당헌당규를 위배한 상태에서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후보로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행정관, 장만채 전 전남도육감, 노관규 전 순천

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 당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오늘 중 지역위원장을 사퇴하겠다”면서 “이개호 도당위원장이 뒤늦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출마결정을 늦게 하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도시형 농촌경제 성공모델 만들 것”

김성모, 오는 27일 함평군수 출마선언

김성모 전 함평군변영회장이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김 전 회장은 19일 “새로운 농촌경제 모델제시를 통한 잘 사는 함평 건설 등 지역사회에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함평 발전을 옥죄어 온 낡은 정치를 끝내고, 경제와 관광, 예술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도시형 농촌경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며 “기존 정치권의 패거리 문화로

나쁜 지역사회 화합과 더불어 신뢰받는 행정상을 실현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함평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출신인 김 전 회장은 1982년 한국스치로폴, 1995년 ㈜한국판넬, 1997년 ㈜대양 스킨케어와 ㈜그린판넬을 설립해 운영 중인 건설한 기업인이다.

2005년에는 신광면에 레드마운틴



북분자농조합 법인을 설립해 농촌경제에 새로운 길을 열기도 했다.

2009년 모범 경영인으로서 대통령상 수상, 2013년 국회의장 대상, 동탑산업훈장, 2014년 중소기업 선정 등을 수상했다.

김 전 회장은 특히 2014년 제9대 함평군변영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해 퇴임 때까지 동함평산단, 해보농공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점고 설립, 장학사업 등 인재양성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정근산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이용섭 “후대에 안전한 자연환경 물려줘야”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운동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가입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새로운 가족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예비후보는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

기희생을 감내하면서 환경을 지켜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파괴된 4대강이 문재인 정부에서 원상으로 잘 복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환경운동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해 다음세대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SNS 활용 이색 선거 마케팅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페이스북 라이브 ‘기정사실’과 ‘기정사용법 시리즈’ 동영상, 카드뉴스 ‘강기정이 궁금해?’ 등 이색 선거마케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예비후보가 출연한 김광진의 라이브로 코스 ‘기정사실-나의 광주, 나의 청춘’이 동영상 조회수 4,500회를 돌파했다. 강 예비후보는 라이브트코소에서 5·18당시 청년시절 이야기부터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 국회의

원 시절 주말부부 이야기, 시장 예비후보로 광주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다.

캠프 SNS 채널을 통해 열린 ‘강기정사용법’ 제1탄 ‘팔써름’ 편도 인기다. 공식블로그에서는 ‘강기정 궁금해?’ 시리즈를 통해 이력과 정책, 기초노령연금법과 건강검진기법법 등 대표발의 법안 등을 카드뉴스로 소개하고 있다.



최영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광주 실현”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지속가능성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녹색수도 광주 실현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태봉산·경양호공원 조성 ▲제2푸른길공원 조성 ▲도시공원 명소화 ▲

100개의 도시숲·100개의 산책길 조성 ▲효율적 물순환도시 구축 ▲탄소배출량 저감정책 추진 ▲자원순환체계 강화 ▲UN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 선도적 이행 ▲유럽연합의 녹색수도 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연결하는 14km구간을 제2푸른길공원으로 조성해 도심속 생태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지역별 5대 발전전략 제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19일 광주발전을 위한 지역별 5대 전략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밸리, 서구와 광산구는 공항이전 후 해당부지 내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조성, 남구는 에너지밸리,

북구는 광주역 경제문화복합타운, 광산구는 빛그린·진곡산단과 점단지구를 축으로 한 친환경자동차밸리를 거점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별 성장거점을 설정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새로운 기회로 확장하고 동시에 도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센트럴파크와 5·18타워 세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19일 광주 센트럴파크와 5·18타워 건립계획 등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화수도에 걸맞은 도심공원과 랜드마크 조성사업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50년이 되어가는 현 기아자동차 공장을 더 쾌적한 부지로 옮기고, 그 빈자리에 친환경적인 센트럴파크와 랜드마크를 조성

하자”고 밝혔다. 또 518m 높이의 5·18타워를 함께 세워 세계적 명소로 만들고 문화콘텐츠를 아우르게 해 연간 수천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양 예비후보는 “센트럴파크와 5·18타워 등 두 축을 중심으로 광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광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수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문상필, 북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시의원 사퇴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19일 “6·13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위해 광주시의원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 8년간의 활동을 통한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민주당 북구청장 경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북구에 활력을 불어 넣고 더불어 도약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구에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준비된 혁신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활력 넘치는 광주공동체를 의정활동 목표로 삼고 소신있는 정치, 공부하는 정치, 비전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는 원칙을 갖고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시간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길을 묻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신정훈 “순천에 전남도 제2청사 건립”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19일 “순천에 전남도 제2도청사무소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날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한 동부권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약신도시 도청청사와 순천시청간 거리는 117km에 달해 도청한번 다녀오면 하루를 허비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양만권에 대한 핵심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광양만권에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더딘 발전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국정과제인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순천은 도청 제2청사와 더불어 아시아 제일의 가드닝시티로 육성하겠다”며 “순천을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드닝시티로 만들고 동시에 전남원예화훼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